

# 탈북여성과 공감/혐오의 문화정치학

김은하\*

## 차례

1. 초국경시대와 이방인 혐오의 감정 경제
2. 이동과 귀속의 젠더 지리학: 『찔레꽃』, 『근돈과 근둑』, 『세 번째 집』
3. 국경 횡단의 여정과 국외자의 이방인성: 『리나』
4. 맺음말을 대신하며

## 〈국문초록〉

탈북여성은 초국적 자본의 이동과 노동시장의 재편성 속에서 국민국가가 이주와 정주의 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등과 함께 한국문학이 새롭게 주목한 주인공이다. 북한 여성들의 월경은 북한 체제의 가부장적 권위가 무너지는 한편으로 세계체제의 주변부 지역들이 강대국과 거대자본에 의해 서발턴화되고 있음을 증언한다. 탈북여성들의 이야기는 환대는 낫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대적으로 대접받지 않을 이방인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무국적자나 난민은 국가, 국민, 영토라는 삼위 일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로 거주할 장소를 가지지 못하기에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이들은 사회가 그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한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비인간’, 소위 ‘절대적 타자’라는 말로밖에는 부를 수 없는 존재이다.

한국문학은 이렇듯 비인간으로서 탈북여성이 겪는 고통을 시민의 양심을 일깨워 줄 공감 윤리의 자원으로 재발견한다. 그녀들이 이동의 과정에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서 겪는 비참과 모멸적 사건들은 슬픔, 분노, 경악 같은 감정들을 요동치게 한다. 이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전달되어 제 삼자인 관망자도 당사자가 느끼는 것과 유사한 감정을 얻음으로써 ‘동류의식’이 형성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탈북여성을 공감의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는 문명의 도덕 질서에서 벗어난 야만성으로 은유된다. 소설 속 아시아는 황량한 자연만큼이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강간이나 살인마저 불사하는 이리떼의 땅, 즉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가 되는 자연상태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재현은 세계체제의 하위체국으로 부상 중인 한국이 북한과 중국이라는 로컬을 스스로와 구별지음으로써 탈(脫)아시아하려는 욕망을 암시한다. 혐오는 경계 의식과 서열 의식을 내포하는 동시에 자신과의 근접성과 동질성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여성에 대한 재현 역시 혐오 경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녀들은 아시아라는 그로테스크한 공간에서 짓밟히고 착취당해 비인간으로 전락함으로써 동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핵심어 : 탈북여성, 이방인, 장소 상실, 국경, 시민권, 혐오, 공감 등

## 1. 초국경시대와 이방인 혐오의 감정 경제

탈북여성은 초국적 자본의 이동과 노동시장의 재편성 속에서 국민국가가 이주와 정주의 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등과 함께 한국문학이 새롭게 주목한 주인공이다. 북한 여성들의 월경(越境)은 북한 체제의 가부장적 권위가 무너지는 한편으로 세계체제의 주변부 지역들이 강대국과 거대자본에 의해 하위주체화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여성의 행위자로서의 주체성에 주목한다고 할지라도 탈북이 고난의 행군기에 시작되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봉쇄 조치 이후 가속화되었다는 점에서 ‘월경’은 엑소더스의 성격이 강하다. 강영숙의 『리나』(랜

덤하우스코리아, 2006), 정도상의 『찔레꽃』(창비, 2008), 이대환의 『큰돈과 콘돔』(실천문학사, 2008), 이경자의 『세 번째 집』(실천문학사, 2014) 등은 이동과 유랑의 플랫폼을 통해 난민 여성의 취약한 삶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유도한다. 소설 속 여성들은 모국을 벗어나 비법월경자가 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마저 박탈당한 ‘벌거벗은 생명’으로 내몰린다. 그녀들은 국경의 벽 앞에서 온갖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디아스포라로 보편적 인권의 허구성을 고발한다.

칸트는 『영구평화론』(1795)에서 환대는 박애와 무관하게,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대적으로 대접받지 않을 이방인의 권리라고 했다. 그러나 난민은 국가, 국민, 영토라는 삼위일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로<sup>1)</sup> 거주할 장소를 가지지 못하기에 인간적 존엄 혹은 체면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 국경의 법이다. 김현경은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자리를 준다/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딸린 권리들을 준다/인정한다는 뜻이다. 또는 권리들을 주장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환대받음에 의해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권리들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sup>2)</sup>고 함으로써 사람, 장소, 환대라는 세 개념이 상호연동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국민국가가 국민과 난민, 시민과 인간 그리고 ‘삶의 형태’와 ‘벌거벗은 생명’을 상호 분리시키는 경계”<sup>3)</sup>로 국민은 국가에 의해 인권이나 생존권을 보장받고 귀속성과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난민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탈북자들은 낯선 땅의 이방인인 동시에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 무국적의 떠돌이(Diaspora, 離散者)로, 거주할 장소를 가지지 못했기에 어떤 조직된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부여받는 권리마저 상실한 것이다.<sup>4)</sup> 난민으로서 탈북자는 한 사회가 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한

1) 박규택, 「주권국가의 생성과 변화 속 로컬리티의 위상」, 『로컬리티의 인문학』 26, 2013, 5쪽.

2)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207쪽.

3) 하용삼·배윤기, 「경계의 불일치와 사이 공간에서 사유하기-G. 아감벤의 국민·인민, 난민을 중심으로」, 『대동철학회』 제62집, 대동철학회, 2013, 86쪽.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비인간’, ‘절대적 타자’이다.

이를 증명하듯 탈북여성의 이동은 쉽게 지워버릴 수 없는 ‘외상적’ 경험에 가깝다. 국경은 난민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비인(非人)의 위치를 발견하는지 보여준다. 여성의 월경은 자유의 증거이기도커녕 악무한의 고립과 폭력 속에서 내던져져 예측된 신분의 지위를 수락할 때만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목인 받는 모욕의 연쇄다. 가부장제 하의 여성들이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곳에 머물 수 있는 시민적 장소권을 완전히 갖지 못한 것이 상으로, 난민 여성은 거주를 허가 혹은 목인받기 위해 성적 착취나 인신매매 등 극한의 폭력 속에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령 간난신고 끝에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도 편입된 국민국가에서 이주여성과 마찬가지로 서발턴의 위치를 면하기 어렵다. 탈북자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기원,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비국민’으로 자리매김된다. 냉전체제가 무너진 뒤 북한이 정치적 후진국, 최빈곤국으로 표상됨으로써 탈북자는 공포의 대상이라기보다 자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한편으로 우월감을 만족시켜주는 혐오 대상이 되었다. 대중매체에서 재현되듯이 탈북 여성의 이미지는 주로 생존 본능만 남아있는 기회주의자이자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배신자, 또는 잠정적인 간첩이다. 탈북 여성의 ‘팔려간/도망친/추방된 여자’ 이미지는 그녀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비하와 경멸, 혐오를 강화함으로써 남한 사회에서 적응과 생존을 위협한다.<sup>5)</sup>

혐오는 이방인을 비국민, 비인간으로 배치하는 재현 전략의 전형적인

4) 손철성, 「난민의 인권」, 『윤리교육연구』 제32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3, 207~208쪽.

5)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고정 장르로 자리잡은 탈북자 관련 토크쇼나 가상 결혼 프로그램이 교양이 아니라 연예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언뜻 탈북여성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듯하지만 기실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의 쾌락을 유발한다. 미디어 속 탈북여성들은 환대권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야만의 기억을 소환함으로써 남한 사회를 유도 피아로 채색해주는 선전물이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국과 그 문화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역할이 맡겨진 것이다.

방식이다. 본래 혐오는 특정 대상에 대해 본성적으로 느끼는 메쓰꺼움, 토약질 같은 신체적 반응을 동반한 것으로, 주체가 자신의 동물적 측면을 환기시키는 것들을 타자화함으로써 문명화하는 감정적 동력이다. 마사 누스바움에 따르면 혐오는 역사적으로 “특정 집단과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강력한 무기”로 인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혐오의 속성들(점액성, 악취, 점착성, 부패, 불결함)을 대상에 부여함으로써 “자신들의 보다 우월한 인간적 지위를 명백히 하려”는 지배 문화의 전략으로 사용되었다. 역사상 유대인, 여성, 동성애자, 불가촉천민, 하층계급 등 사회적 하위 집단이 육신의 오물로 더럽혀진 존재로 상상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sup>6)</sup> 이는 사회적 집단을 나누는 여러 경계들이 무너지고 뒤섞여 혼종성을 특징으로 하는 초국가시대에 이방인 혐오가 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가 공고화됨에 따라 점차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곳이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며, 설령 어떤 자리를 점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든 그것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잠재적 장소상실자로 내몰린 현실은 대상에 대한 혐오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는 정동의 경제학을 발생시킨다.<sup>7)</sup> 즉, 혐오는 대상이 자신과 가깝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폭력적으로 배척하려는 정동이다.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추락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안은 자국 내 타민족과 외국인에게 전가하여 이주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만드는 ‘이주의 정치화 현상’<sup>8)</sup>이 발생하는 등 20세기

6)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201쪽.

7) 혐오의 이론가들은 혐오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더럽다’는 느낌은 주체의 경계가 무너질 때 보이는 정서적 반응이라는 것에 주목한다. 혐오는 더럽고 추하고 비천한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서 경멸과 흡사하지만, 경멸이 대상을 열등한 것으로 쉽게 무시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인데 반해, 혐오는 주체가 자신의 청결, 순수, 안전, 경계가 침범당할 때 느끼는 불쾌감 혹은 위협감이다.(김미현, 『혐오의 매혹: 코맥 맥카시의 『피의 자오선』, 『감정의 지도그리기』, 소명출판사, 2015, 213쪽.)

8) 국민의 불만을 반이주자 정서로 추동해내는 보수정권의 득세는 이주의 정치화를 가속시킨다. 유럽과 북미의 반이주자, 반무슬림 정서의 확산이나 다문화정책의 종식 선언은 이주 문제를 정치화시켜 사회경제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것이다. 이와

에 흐릿해진 국민국가의 경계를 다시 세우려는 보수화 경향이 노골화되고 있다.<sup>9)</sup>

탈국경 서사는 국가의 ‘의미로서의 경계’가 국민의 의식과 무관하게 미리 국민의 내면에 각인되어 있음으로써 국민이 경계를 사유하지 않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셔널리즘 히스토리에 저항하는 측면이 있다.<sup>10)</sup> 오늘날 탈북자는 문학이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봉합하는 존재라기보다 국민국가 중심의 거대서사와 그 고정성이 도전받는 시대에 와 있음”<sup>11)</sup>을 보여주는 문제적 주인공이다. 김영하의 『제국의 빛』, 권 리의 『왼손잡이 미스터 리』,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 전성태의 여러 단편들에서 탈북자는 단순히 분단체제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국경으로 상징되는 일체의 사회적 구속과 경계-국가, 법, 규율, 관습, 계급, 제도-를 회의하는 정치적, 심리적 망명객으로 등장함으로써 근대 이후에 대한 소설의 고민을 들려준다. 그러나 탈북여성들을 초점화한 소설은 이동과 귀속의 젠더 지리학에 포박되어 있기 때문에 근대 국민국가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한편으로 수난당하는 여성의 보호자로서 그 권위를 확증받는다. 탈북여성들의 이동과 유랑의 플롯은 젠더화된 로컬, 즉 여성화된 타자로서의 북한에 대한 원조와 구출이라는 가부장적 내셔널리즘의 문법

---

관련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것. 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돌베개, 2014, 216쪽.

- 9) 근대의 불안은 인간의 주체성을 위협하는 세계 앞에서 인간의 주인됨을 지키려는 사변적 저항이었지만 후기 근대의 불안은 노동의 세계에서 배제, 추방될 수 있다는 가능성, 즉 잉여로 남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권리를 갖지 못하는 개인이 무능하거나 근면하지 못한 결과로 치부됨으로써 공적 부조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은 이 방인 혐오의 엔진이 가동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10) 냉전체제 하 한국인의 정동 구조를 묘파한 박완서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돌』, 등 여러 작품이 보여주듯이 북으로 간 혈육이 남한으로 찾아와 국가로부터 겪을 고초에 대한 공포는 이산가족들의 무의식에 잠재된 것이었다. 혈육의 귀환을 받아 워하기보다 월경 과정에서 죽기를 기원하는 비정은 냉전의 통치성이 인륜성마저 지배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 11) 오영숙, 「탈북의 영화적 표상과 아시아라는 공간」, 『탈북의 경험과 영화 표상』, 문화과학사, 2011, 177쪽.

에 묶여있다. 근대 역사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우리들’로부터 추방하는 것이 주로 인종화와 젠더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지역화를 동반하고 있다.

## 2. 이동과 귀속의 젠더 지리학: 『짚레꽃』, 『큰돈과 큰돈』, 『세 번째 집』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도덕철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인간을 각자 이익의 코를 좇아 움직이는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본성을 가진 존재로 설명함으로써 감정을 사회를 유지하는 도덕 원리로 발견했다. 그는 『도덕감정론』에서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해도 타인의 운명을 배려하고 타인의 행복을 보는 게 기본이 좋다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경우도 그들의 행복이 자기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어떤 원리”<sup>12)</sup>로 ‘공감’을 제시한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그저 보는 것만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주체와 타자 사이에는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체는 결코 타인의 슬픔을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주체는 자기 자신을 타인의 입장으로 바꿔놓는 ‘상상적 동일시’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과 같은 인격”이 될 수 있다. 이는 ‘공감’이 주체가 타인의 입장이 되어 다른 이의 경험을 상상해볼 때 생겨나는 일련의 감각적 반응으로서, 대상에 대한 시혜적 태도인 연민이나 동정과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sup>13)</sup> ‘공감’ 윤리의 발견은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문학에 높은 위상을 부여했다.<sup>14)</sup>

12) 애덤 스미스, 박세일·민경국 역,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2010, 235쪽.

13) 신경숙, 「공감, 보기, 그리고 감정노동-『프랑켄스타인』의 아담 스미스 다시 읽기, 『영어영문학』 제58권 2호, 한국영어영문학회, 2012, 191쪽.

14) 가라타니 고진에 의하면 18세기 후반에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네이션(nation)’이 등장했을 뿐 아니라 ‘상상력’ 그 자체가 특수한 의의를 지니고 출현했다. 네이션이 성립하는 것과 철학사에서 상상력이 감성과 오성(지성)을 매개하는 지위에 놓이

이천년대 이후 한국문학은 초국경시대를 맞아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에 발견된 ‘공감’을 인종적, 계급적,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어 인류애를 호소하는 연결망으로 다시 주목하고 있다. 정도상의 『찔레꽃』, 이대환의 『큰돈과 큰돈』은 탈북여성이 겪는 고통과 소외에 대한 공감을 통해 문화적, 이념적 이질성을 넘어 분단과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두 소설은 모두 미혼 여주인공의 탈향과 월경 그리고 남한 입국으로 이어지는 이동의 궤적에 초점을 둔 유랑 서사의 형식을 취한다. 충심과 창숙은 모국에서 튕겨져나간 후 아시아의 여러 주변부 지역을 사고 팔리는 상품이 되어 떠돈다. 그녀들은 빈번히 성적 폭력에 노출되며, 브로커에 팔려 가난한 한족 중국 남자가 결혼하거나 유흥주점의 성매매 여성이 되는 등 출산 기계, 섹스 기계로 전락한다. 그리고 브로커인 선교사를 통해 제 3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함으로써 비로소 밀고와 강제 귀환의 공포를 벗어난다. 이처럼 두 여성이 이동 과정에서 겪은 ‘사건’의 폭력성은 국경이 단지 영토 구분을 위한 지리적 분할선이 아니라 민족과 젠더의 차별적이고도 위계적 이분법을 수호하고 지지해온 폭력의 메카니즘임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탈향과 수난 그리고 남한 입국으로 이어지는 여로형 플롯은 탈북여성들 “하나의 공간에서 튕겨져 나간 존재로 동시에 다른 공간에 흡수되어야 할 존재로 복원”<sup>15)</sup>함으로써 여성의 이동에 대한 가부장적 상상력을 벗어나지 못한다. 모국을 떠난다는 것은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고 삶을 개척해나가고자 하는 용기의 표현이며, 이주자의 삶은 일터와 삶터의 불안정한 조건에 맞서기 위해 분투하는 한편으로 주변사람들과 친교하고 가족을 구성하며 일상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평범한 사람과 그다지 다

---

는 것은 같은 시기로 지각의 의사적 재현능력이나 자의적 공상능력으로 여겨진 상상력의 가치가 창조적 능력으로 발견된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세계공화국으로』, 도서출판b, 2007, 170~178쪽.

15) 소영현, 『마이네리티, 디아스포라-국경을 넘는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제2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6, 71쪽.

르지 않다.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전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모국이나 고향 그리고 가족을 떠나 낯선 곳을 향했다는 점에서 이주자, 즉 이방인이다. 그러나 이 소설들은 여성의 탈북을 주체의 의지와 무관한 우연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여성의 행위 주체성을 지워 버리는 한편으로, 차별에 맞서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고투보다 비법월경자로서 국경에서 겪는 수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이방인이 겪는 고통과 소외에 대한 포편적 공감을 유도하기보다 탈북여성을 특별히 기괴하고 낯선 혐오대상으로 전시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이동을 성적 수난의 궤적으로 초점화함으로써 난민으로서 탈북여성이 겪는 인권 문제를 섹슈얼리티화하는 등 가부장적 상상력에 갇혀 있다.

특히, 『큰돈과 큰돈』은 창숙의 여정을 성적 유린 등으로 점철된 수난담, 인민군 전사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의 이야기로 그려낸다. 소설은 남한에 정착한 창숙이 임신의 불안에 쫓기며 같은 탈북자인 김금호와 성관계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일련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 남한 사회에 대한 확신인 양 큰돈없는 섹스를 결심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sup>16)</sup> 이렇듯 성적 육체의 쾌락과 불안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북한 여성을 성애화하고, 이동의 목표가 남한사회에 귀속, 동화하는 것인 양 제시함으로써 체제선전물의 성격마저 띤다. 표창숙은 보험외관원으로서 남한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며, 마트와 자가용으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의 풍요와 자유 속에서 세속적 행복을 느끼는 등 시장체제의 우월성을 확인시켜주는 인물이다. 그녀의 남한정착기는 이방인이 적절히 행동한다면 출신이나 기원과 무관하게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민국가의 '조건부 환대'의 메시지를 들려준다.<sup>17)</sup> 그녀는 직장을 비롯한 교회의 호혜적 관계들, 즉 '사회자본(social

16) 소설의 제목인 '큰돈과 큰돈'은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고비용이 드는 임신, 출산을 유예해야 한다는 각오로, 시장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욕망을 절제, 관리해야 한다는 주인공의 현실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각오는 탈북-남한행의 과정에서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그녀가 겪는 트라우마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의 국경 횡단의 경험을 자궁과 섹스, 출산과 모성되기로 환원시키는 상상력의 빈곤은 자못 심각하다.

capital)’의 후원에 힘입어 빠른 시간 안에 보험여왕의 자리에 등극한다. 그러나 회사의 요청 하에 이루어진 특강은 탈북과정에서 겪은 수난과 고통의 전시, 북한 체제에 대한 고발을 골자로 한 것으로 사실상 이방인의 이질성을 제거하기 위한 관용 주체의 강요된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역설한다. 이는 탈북자의 이념적, 문화적 정체성이 불관용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지만, 관용 주체의 권위나 감시의 시선은 은폐된다. 서술자는 북한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실패한 국가로 선언하는 데 반해, 한미 FTA 시위 행렬을 통해 남한을 정치적으로 열려있는 한편으로 ‘시장혁명’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한 긍정적인 사회로 제시한다. 이로 인해 탈북여성이 국민국가의 중심/주변의 경계 속에서 비국민으로 겪는 소외나 차별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큰돈과 큰돈』이 남한을 고통받는 여성, 즉 북한이라는 로컬의 이상적인 보호자로 제시함으로써 국민국가의 허위와 균열을 봉합한다면, 『짚레꽃』은 탈북여성의 경험이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자원으로 전유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체제저항적인 성격을 띤다. 순진한 처녀인 충심은 아버지의 병구완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인신매매업자에게 속아 연인과 가족이 있는 모국에서 강제적으로 뺏겨져나간다. 그녀는 국가 간의 힘들이 작동하는 국경지대에서 탈북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용을 내세워 우익의 결집을 피하는 교회 세력과 이권을 다투는 인신매매업자, 탈북자 사냥꾼들에 둘러싸여 있다. 충심은 약탈과 죽음의 정글 속에서 보편적 인권을 기대할 수 없는 난민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해 가까스로 남한에 입국한다. 그러나 그녀는 남한의 주변부에서 하위계급 남성의 좌절된 남성성을 위안하는 섹스워커가 됨으로써 불안정하고 부조리한 삶의 조건을

17) 이러한 사실은 본래 관용이 사회적으로 열등하지만 기본적으로 무해한 사람에게 보이는 정서적 반응이자, 불쾌를 유발하는 대상에 대한 신중한 억압에 가까운 것임을 뜻한다. 즉 관용은 이방인에 대한 완전한 인정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인정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합리적 판단으로서 자신의 안전을 중심에 둔 판단이다. 그러므로 만약 타인이 주는 불쾌감이 커진다면 관용은 언제든 철회되어 이방인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벗어나지 못한다. 노래방 출장 성매매 여성인 충심은 가부장적 국민국가 내부 구성원의 중심/주변의 경계를 유지시키고 조정하는 서발턴, 즉 성매매라는 혐오노동 속에 투입된 위안부로서 남한 사회 내 탈북여성이 처한 비국민의 불안한 위치를 환기시킨다.<sup>18)</sup>

그러나 성매매는 충심이 북의 어머니를 탈출시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적인 선택으로, 남한사회에서 탈북여성의 상품화된 섹슈얼리티라는 구조적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 충심은 자존심 강한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탈북자에 대한 남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는 대신 성매매 시장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충심의 탈북-남한행으로 이어지는 여정은 모국에 대한 환멸, 남한 체제에 대한 선망 같은 이념적 동기를 결여하고 있다. 그녀가 자신을 남한으로 보내줄 선교사의 강요에 못이겨 “조선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김정일은 나쁜 사람이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라는 편지를 쓰고 굴욕감을 느끼는 것은 남한행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길 위에 머물 수도 없는 난민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충심은 강요된 고백에 대한 저항인 양 남한에서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정착 지원을 거부한 것이다. 그녀의 주체성은 비록 섹스워커로서 남한의 남성들에게 몸을 팔지만 성매매와 사랑을 분리해 복한 여자의 품위와 자존을 지키려는 데서도 드러난다. 그녀는 스물아홉 번을 만났지만, 자신이 노래방 출장성매매 도우미라는 것을 알고 있는 노동자 최에게 “뻘뻘해질 수 없어서”(204쪽), “인간의 위신을 지키려 무척 애를”(149쪽) 쓰며 그의 구애를 거부한다. 이러한 재현은 탈북여성에 대한 ‘팔려간/도망친/몸파는’ 여자 표상에 맞서기 위한 서사적 전략이다. 그러나 비천하지만 자존심을 잃지 않은 성매매 여성은 성스

18) 이진경은 성노동자가 성매수자에 의한 폭력, 살인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를 ‘죽음정치적 노동’으로 칭하는 한편으로 저개발 국가의 모더니티 프로젝트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섹스 이코노미’와 상보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임을 주장한다.(이진경, 나병철 역, 『서비스 이코노미』, 소명출판사, 2015, 5~15쪽.)

러운 창녀에 대한 판타지이며, 여성을 민족이나 이념의 순결성을 보증해주는 표식 혹은 기호로 삼는 20세기 국민문학과 그 대항 서사로서 진보적 민족문학이 공유하는 관습적인 젠더 상상력이다. 충심은 반체제 지식인의 애착의 대상인 순결한 민족에 대한 은유로서 비록 비천하지만 영혼만은 더럽혀지지 않은 영토, 진정성을 가진 인간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다.<sup>19)</sup>

위의 두 작품은 탈북 여성들이 남한 내 상호이질적인 남성 주체들의 위치와 욕망, 향수와 환상들이 길항하는 표상이며, ‘공감’은 남한 남성 지식인의 타자에 대한 윤리감을 드러내는 감정형식임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이경자의 『세 번째 집』은 성옥과 인호의 로맨스를 통해 민족과 이념의 프레임을 해체하는 한편으로 주체와 타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서열화하는 이념, 계급, 젠더 등 문화의 조건을 넘어서기 위한 공동체 윤리의 한 형식으로 공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식민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고향을 잃고 떠도는 조부와 아버지 그리고 주인공 성옥으로 이어지는 삼대의 삶을 통해 디아스포라의 고독과 소외에 대한 공감을 유도한다. 성옥의 조부는 일제에 징용당해 일본으로, 일본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난민의 처지를 면하기 위해 북한으로, 북에서 태어난 성옥은 일본에서 온 이주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가하는 조국이 싫어 모국을 버리고 남한행을 선택한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어떤 땅에서도 온전히 권리를 가진 국민이 되지 못한다. 제국/식민, 분단에서 연유하는 이주의 흐름은 민족적 동질감에 바탕을 둔 공감 공동체를 호소하는 듯하지만, 동질적인 민족 의식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산다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이념이나 가치는 없다”(작가 후기, 260쪽)는 고통과 비참이라는 인간의 취약성에

19) 이 소설은 분단체제 극복으로 통일의 전망을 상실한 진보적 지식인의 이야기가 북한 처녀 충심의 탈북-월경-남한행이라는 여정을 끌어안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충심은 남한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까지 통일운동을 해온 진보적 지식인이 마음 속에 품어온 순결한 민족과 민중의 표상으로서 북한을 은유한다. 따라서 충심은 비록 비천하지만 영혼만은 순결하고 진정성을 지키는 인간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기반한 동류애이다.

성옥과 인호의 관계는 시장의 거래나 흥정의 전략과 무관한 탈속적 성격이 강한 낭만적 사랑에 가깝다. 건축가인 인호는 남한의 중산층 계급이지만, 성옥은 사고무친의 가난한 탈북자일 뿐더러 아버지를 떠나옴으로써 죽게 했다는 죄책감과 고향 상실감에 시달리는 우울증적 처녀로 둘 사이의 계급의 벽은 높다. 그러나 인호의 성옥에 대한 사랑은 고통받는 타자, 즉 역사의 수난자에 대한 공감 윤리에 바탕을 둔 책임의식에 가깝다. 두 사람의 관계는 상대에 대한 눈 먼 매혹이나 뜨거운 정념을 결여하고 있다. 인호의 성옥에 대한 감정은 건축가인 그가 수복지구 기념관을 설계하면서 상실자의 애도하지 못한 슬픔에 가까이 감으로써 깊어진다. 고향과 가족을 상실한 디아스포라인 성옥의 고독과 애도 불가능한 슬픔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sup>20)</sup> 이는 타자의 주체성을 무시함으로써 주체의 지배하에 두는 '동정'의 정치를 넘어서는 공감의 윤리이지만, 인호가 인간 간의 취약함에 대한 동류애를 기반으로 성옥의 고통에 공감하는 과정이 치열하게 그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탈북여성이 중산층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엘리트 남자의 일방적 구애를 통해 신분상승하는 로맨스물의 성격이 짙다. 로맨스 서사가 그러하듯이 여주인공 성옥은 아버지의 집을 결연히 떠날 정도로 당찬 여성이었지만 인호와의 관계에서

20) 루소는 “내가 불행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불행을 알기 때문이다”는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문장을 인용해 인간은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불행과 관련해서만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는 점과, 타인의 불행에 대해 느끼는 동정심은 그 불행의 크고 작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기울인 감정에 의해서 측정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장 자크 루소, 김종현 역, 『에밀』, 한길사, 2009, 398~401쪽.) 그러나 사실 ‘사건’의 밖에 있는 사람이 희생자의 고통에 공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타자가 ‘나’의 밖에 있기 때문에 타인의 체험을 알 수도, 타인이 되어보는 상상을 할 때조차 ‘나’ 자신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손택의 말처럼 “특권을 누리는 우리와 고통을 받는 그들이 똑같은 지도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특권이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수전 손택, 이재원 역,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154쪽.)하는 것, 즉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다는 두려움만이 타자의 불행을 소비하지 않게 할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시종일관 보살핌과 구조가 필요한 무기력한 존재로 그려진다. 그녀의 우울은 심리적 디아스포라로서 완전히 남한 땅에 귀속될 수 없는 타자성을 암시하는 것이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잃어버린 모국을 애도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사랑과 박애의 대상으로 수동적 위치에 놓인다.

### 3. 국경 횡단의 여정과 국외자의 이방인성: 『리나』

국민국가는 근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생겨난 역사적 구성물, 즉 환영의 소산이다. 이 상상의 공동체는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공격성, 즉 폭력을 배태하고 있다. 근대 국가는 생명을 가진 인간을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가진 국민으로 호명함으로써 한 개인의 삶에 관여한다. 국민이 된다는 것은 이질적인 타 집단을 똑같은 생명을 가진 동류로 사랑하기보다 증오나 반목을 통해 문명이 불허하는 파괴성, 폭력성을 충족함으로써 '우리' 속에 속하게 됨을 뜻한다. 국민국가는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그들'에 대한 적대와 공격을 통해 '우리' 사이에 단합과 일체감을 부여하는 사랑과 증오의 경계이다. 공격본능을 발산할 수 있는 대상이 남아 있는 한, 상당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단결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sup>21)</sup> 오늘날 세계화가 이주의 흐름을 부추기고 있지만 자국민과 이방인이 마주치는 접경지대는 견고한 경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형

21)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문명의 본질 속에는 문명을 개혁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는 장애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그 하나로 가까운 공동체끼리 끊임없이 서로를 반목하고 경멸하는 현상을 든다. 그는 이러한 상호적대가 인간의 공격적 성향을 비교적 해롭지 않고 편리하게 만족시키는 방법이고, 그 덕택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쉽게 단결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배타적 정체성과 애국심에 기반한 근대 민족 국가가 기실 타집단을 적대시함으로써 인간 본성 속의 공격성을 충족시키는 증오의 메커니즘임을 암시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성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히스테리를 불러일으키는 장소이다. 강영숙은 이렇듯 인종, 민족, 국적, 젠더, 종교, 문화 등이 다른 사람들 간의 교류와 교환이 일어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차별적 경계들에 질문을 던지고 경계를 가로지르는 탈북 소녀를 등장시킨다. 이는 탈북여성의 이동을 성의 수난사로 초점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동정을 유도하는 한편으로 처녀성이나 규범적 여성성을 재강화하는 것과 다르다.<sup>22)</sup>

『리나』는 탄광지역 노동자의 딸로 태어난 열여섯의 소녀 리나(俐娜)의 끝도 한계도 모르는 탈항기이다. 리나는 국적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북한에서 태어난 소녀로 부모와 함께 스물두명의 탈출자 무리 속에 섞여 ‘p국’, 즉 한국으로 가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다. 그러나 “내가 태어난 나라와 같은 말을 쓰지만 때깔이 전혀 다르고 풍요로운 곳 이라고 알려진 p국으로 가려”(344쪽)던 그녀의 소망은 좌절된다. 탈출자 무리 중 몇몇 사람들과 함께 북중 인접지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부모와도 헤어지기 때문이다. 이후 그녀는 또 다시 브로커들에게 사고 팔리면서 검은 연기를 내뿜는 화공약품 염색공장, 대륙의 끝에 위치한 마약과 관광의 도시, 시령의 창녀촌, 도시 반쪽이 쓰레기장 같은 경제자유구역 등 글로벌 체제가 야기한 주변부의 기괴하고 불안정한 장소들로 이동하며 성적 폭력과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된다. 리나의 “모든 탈출이 끝나 늙고 또 고요해졌을 때 지금의 저 좌판 위에 있는 촌스러운 신발을 발에 켜고 그곳의 바람과 공기를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발에 맞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곳의 바람과 공기를 느끼고 싶었다.”(312쪽)는 고백은 이동의 고단함과 정주를 향한 외로운 갈망을 들려준다. “늘 나는 걱정했어. 이렇게 알몸인 채로 국경에서 죽으면 어찌나? 이름도 국적도 없는 채로 국경에서 죽으

22) 이해령에 의하면, 『리나』는 “개발도상의 아시아에 강립한 모더니티의 재귀를 노예 노동의 회귀를, 리나가 몸소 보여주듯이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한 이주의 여성화를, 대제양에 가까운 환경오염의 문제를 토착화하면서, 무엇보다 “탈국경” “노동의 종말” “노마드”로 표상되는 후기 자본주의의 담론적 기획을 무색하게 만드는” 문제적 텍스트이다. (이해령, 『탈국경의 상상과 21세기 한국소설의 역사지리학』, 『한국소설과 골상학적 타자들』, 소명출판, 2007, 352~353쪽.)

면 이 몸뚱이를 누가 처리하나?”(346쪽)라는 독백이 암시하듯 난민의 삶은 구겨진 캔이나 비둘기 사체처럼 쓰레기로 분류되어 매립되거나 장례식조차없이 소각장에서 끝이 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길 가의 무성한 풀이나 우리 속에 갇힌 닭의 생애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 없는, 삶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생존이다. 이렇듯 리나는 개인에게 확고함, 안정성을 부여하는 거점을 갖지 못한 난민으로 그녀의 삶은 몹시도 비참해 혐오감조차 자아내지만 리나는 결코 동정의 대상에 머물지 않는다.

리나는 헤어진 부모를 다시 만나 적어도 길 위에서 죽음을 맞는 난민의 운명을 벗어날 기회를 얻지만, 가족을 외면함으로써 p국행을 거부하고 길 위에 남는다. 소설은 “또 허벅지만 굶어지겠군. 내가 가진 건 튼튼한 다리뿐이지”(347쪽)라고 읊조리며 국경의 열린 문을 외면하고 또 다시 이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는 귀속국과 그 정체성에 동일시하기를 요구하는 관용 주체에 대한 거부이지만, 자기의 기원과 정체성에 대한 긍지와 무관한 선택으로서 리나가 국민국가의 경계에 갇히지 않는 유목적 주체성을 선택했음을 뜻한다. 이동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어떤 경계에도 갇히지 않는 무정형성이 유목적 삶의 본질이라는 점은 리나가 이주국 선주민의 시혜와 온정을 기대하는 훼손되고 무력한 타자가 아님을 뜻한다. 그러므로 번번이 리나의 눈을 사로잡던 신발은 정주의 욕망이 아니라 이동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녀는 난민의 위치를 선택함으로써 특정한 지역과 그것에 뿌리를 둔 정체성에 완전히 귀속될 수 없는 낯섦을 간직하고 있는 망명자, 즉 이방인이 되려는 것이다.

동질성이 강한 공동체에서 이방인은 이주국에 완전히 동화될 수 없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낯설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는 자이다. 이방인이 취하는 거리는 단지 물리적 거리와 중립적 위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착된 관념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아웃사이더, 즉 망명객의 위치를 뜻한다. 이는 이방인이 특정 집단의 성원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것들 중 거의 전부에 대해 물

음을 던지는 사람, 즉 어떤 관습, 전통, 권력, 태도, 가치 등에 대해 속박되지 않고 모든 당연해보이는 것들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해방시키는 자임을 암시한다.<sup>23)</sup> 리나는 공동체의 상식을 의문에 부치고, 인간의 진부하고 협소한 상상력을 비웃는 혼돈, 즉 규정될 수 없는 무질서이다. 『리나』를 읽는다는 것은 근대 국민국가가 만들어낸 민족, 인종, 문화, 젠더 등 인간을 설명해주던 범주와 프레임들이 무력해지는 해석의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한 예로 리나를 비롯한 여러 등장인물들은 인물에 관한 기본정보에 해당하는 국적이 지워진 채 등장하는데, 이는 정체성을 인간의 타고난 본래의 성질로 가정하지 않는 한편으로, 이성적 추론과 선택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정체성에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는 비판적 인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며<sup>24)</sup> 비참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인간의 동류의식을 통해 근대 국민국가의 감정의 정치로서 공감론을 넘어선다.<sup>25)</sup>

23) 물음을 던지는 자로서 이방인성에 대한 고찰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김에령, 「이방인의 언어와 환대의 윤리」, 『젠더와 탈/경계의 지형』, 이화인문과학원 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9, 44~47쪽.

24) 아마르티아 센에 의하면, 정체성은 인간에게 긍지와 기쁨 그리고 용기와 자신감을 부여하는 원천으로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타인에 대한 연대감을 불어넣어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체성은 한 집단에 대한 강한 동일시로, 다른 집단과의 거리감과 분리됨의 느낌을 주어 '우리'가 아닌 이들에 대한 불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 정체성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간성이라는 폭넓은 공통성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체성들을 외면하게 만든다. 센은 정체성이 다원적 성격과 다양한 함의를 지닌다는 것을 인식함과 더불어, 다양한 정체성들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선택'의 역할을 과약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마르티아 센, 이상환·김지현 역, 『정체성과 폭력: 환경에 의한 폭력』, 바이북스, 2009.

25) "공감이란 '중립적 관망자'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가 내 감정 상태를 승인할 때의 그와 나의 감정이 근접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행위자의 감정이나 행위를 통한 반응에 상응하는 감정을 그것을 관망하는 사람도 스스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행위자 역시 자신과 유사한 감정이 관망자에게 생겨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또한 상상하고 그 상상의 결과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신경숙, 위의 글, 200쪽)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인간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 하위주체들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 생각, 감정을 필터링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공감은 국민국

『리나』는 세계화의 폭력성에 대한 난민 여성의 고발과 증언 그리고 인간적 권리를 얻기 위한 항거의 기록이다. 이 소설은 초국적 자본을 앞세운 일세계 국가가 아시아와 같은 세계체제의 주변부를 약탈하는 한편으로, 초국적 자본과 공모한 제 3세계의 국가가 국가 내부의 하위계급과 외부의 불법체류자, 난민 등을 어떻게 동원하고 차별하는지 보여준다. 리나는 시링의 창녀촌에서 강제추방된 후 왕년의 가수였던 할머니, 삐 등과 함께 브로커에게 팔려 공단지대의 노동자가 된다. 대륙의 국경에 인접한 공단 도시는 역 광장 한복판에 전통 의상을 입은 애드벌룬 인형이 서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오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경제자유구역’이다. 리나의 유량을 부추긴 것은 환경부담을 피하고 값싸고 양질의 노동력을 찾아 이동하는 초국적 자본인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디스토피아로서 세계화의 현재와 더욱 위태로운 미래를 암시한다. 공단은 안전시설 미비로 빈번히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사과나 개선의 약속조차 없는 노동의 디스토피아로, 공단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불법파견 노동자 등 신자유주의 시장의 노동난민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한다. 가스저장용 탱크 시설이 갖춰진 대규모 플랜트 공업단지는 칠년 전 가스 폭발보다 더 한 심각한 재난을 예고함으로써 세계화가 로컬의 환경과 개인의 삶에 가하는 위험을 암시한다. 특히 초국적 자본과 로컬의 국민국가는 공모와 담합을 통해 불법체류노동자나 난민 등 국민국가의 외부로 밀려난 이들을 동력기계를 가동시키는 석탄인 양 끊임없이 투입한다. 공단은 국가가 공동체 내부의 타자와 외부의 타자를 차별, 배제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물리적 경계 내부로 포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6)</sup> 리나는 공단에서 플랜트 건설을 위해 혹사당하며 자본의 이익을 창출하지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재난의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구조 대상이 되기는커녕 추방당한다. 그녀는 탈출 비용으로 모은 돈과 거주지 그리고 할머니마저 잃고

---

가의 가치와 정체성에 비추어 자기를 조율하도록 요구하는 규제적 역할을 할 수 있다.

26) 하용삼, 배윤기, 앞의 글, 97쪽.

화공약품을 뒤집어 쓴 채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거리의 떠돌이로 전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나』는 단순히 수난당하는 탈북 소녀가 아니라 탈주를 통해 새로운 관계와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능동적 행위자이다. 그녀는 비록 팔려왔지만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고투하고, 길 위에서 만난 소년 ‘삐’와 늙은 여가수 할머니 와 함께 유사 가족을 형성함으로써 ‘단간’이 되고자 한다. “리나는 두 개의 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개의 달은 비록 피를 흘리지만 또 다른 한 개의 달은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해 도무지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소설의 초입에 놓인 문장은 리나가 수난당하는 사회적 약자일 뿐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는 모성, 즉 복수(複數)의 여성 주체임을 뜻한다. 실제로 리나는 소녀이면서 어머니이고, 이성애자이면서 동성애자이며, 강간과 매춘의 피해자이자 살인, 사체유기 등을 저지르는 가해자로서 어떤 분류나 정의에도 들어맞지 않는 무규정성, 즉 혼돈이다. 근대국가의 형성 이후 여성문학은 제도적 여성성 규범을 비틀고 위반함으로써 여성성의 이질적 성격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성모대 팜프파탈이라는 위상기하학을 벗어나기 위해 광녀의 히스테리적 열정을 빌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리나는 국민국가의 이념적, 성적 경계를 횡단함으로써 가부장적 내셔널리즘의 문법을 내파하는 인물이다. “리나는 또다시 저만치 앞 허공에 푸른 독처럼 펼쳐져 있는 국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348쪽)는 문장은 『리나』가 국민국가의 젠더 경계를 횡단하는 여성 주체의 모험담임을 뜻한다.

#### 4. 맺음말을 대신하며

누스바움은 혐오는 실제 대상이 주체에게 위협을 행사하느냐의 유무와 무관한 신비적 사고로서 기실 “취약성과 수치심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된 감정이라고 한 바 있다. 혐오 주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동물

과 공유하고 있는 일정한 형태의 취약성이며, 우리 자신이 퇴화하거나 폐기물이 되어 가는 경향”<sup>27)</sup>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천년대 한국문학이 소속없는 이방인들이 겪는 고통과 박탈의 경험을 통해 타자의 취약성을 환기시킴으로써 공감을 촉구한다는 점은 성찰적인 정치공동체의 구상을 위한 뜻깊은 시도다. 최근 한국문학은 비인간으로서 탈북여성이 겪는 고통을 시민의 양심을 일깨워 줄 공감 윤리의 자원으로 재발견했다. 그녀들이 이동의 과정에서 겪는 사건들은 국적, 이념, 문화 등 이질적인 정체성들과 그것이 만들어낸 경계를 넘어 슬픔, 분노, 경악 같은 감정들을 요동치게 한다. 이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전달되어 제 삼자인 관망자도 당사자가 느끼는 것과 유사한 감정을 얻음으로써 ‘동류의식’이 형성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북한 사람을 기괴한 이방인 혹은 괴물로 가정되어온 냉전시대의 통치적 상상력이 파열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쉽게 공감할 수 없다. 주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고통 밖에 있는 ‘관망자’로서, 타인의 체험을 알 수도 없고, 타인이 되어보는 상상을 할 때조차 ‘나’ 자신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감은 주체가 타자의 경험을 왜곡함으로써 오히려 타자를 지워버리는 타자 추방의 위험마저 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작품들이 탈북여성을 공감의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를 문명의 도덕 질서에서 벗어난 야만성으로 은유하고 있다. 소설 속 아시아의 공간들은 황량하고 거친 자연만큼이나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훔치고 살인마저 불사하며, 젊은 여자라면 강간하고 팔아치우는 이리떼들로 득시글하다. 그것은 마치 정치사회가 들어서기 이전의,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가 되는 자연상태를 연상시킨다. 이는 세계체제의 하위제국으로 부상 중인 한국이 북한과 중국이라는 로컬을 스스로와 구별지움으로써 탈(脫)아시아하려는 욕망을 암시한다. 혐오는 경계의식과 서열의식을 내포하는 동시에 자신과의 근접성과 동질

---

27) 마사 누스바움, 앞의 책, 175쪽.

성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여성에 대한 재현 역시 혐오 감정을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소설 속 탈북여성들은 아시아라는 그로테스크한 공간에서 짓밟히고 착취당하는 수난자가 됨으로써 동정의 대상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재현방식은 언뜻 환대의 체스처 같지만 탈북 여성에 대한 환상을 투사함으로써 다양한 주체 위치를 억압하기 위한 통치 전략으로도 보인다. 환대는 이방인의 권리가 아니라 주인이 손님에게 베풀어주는 인정담론이다. 이방인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에 한정되어 베풀어지는 것이 환대이다. 탈북여성이 순수나 야만같은 혐오의 위치에 있을 때 박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환대의 역설이다. 이렇듯 부조리한 친절 속에서 복한 여성이라는 타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원을 기꺼이 모욕하고 급진성과 이질성을 은닉해야 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이경자, 『세 번째 집』, 실천문학사, 2014.  
 이대환, 『큰돈과 큰덤』, 실천문학사, 2008.  
 정도상, 『찹레꽃』, 창비, 2008.

### 2. 단행본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207쪽.  
 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돌베개, 2014, 216쪽.  
 서경식, 『난민과 국민 사이』, 임성모 · 이규수 역, 돌베개, 2006, 204~216쪽.  
 이진경, 『서비스 이코노미』, 나병철 역, 소명출판사, 2015, 5~15쪽.  
 가라타니 고진, 『세계공화국으로』, 조영일 역, 도서출판b, 2007, 170~178쪽.  
 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역, 민음사, 2015, 201~207쪽.

- 수전 손택, 『타인의 고통』, 이재원 역, 이후, 2004, 154쪽  
아마르티아 센, 『정체성과 폭력: 환영에 의한 폭력』, 이상환·김지현 역, 바  
이복스, 2009.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 박세일·민경국 역, 2010, 비봉출판사, 235쪽.  
장 자크 루소, 『에밀』, 김중현 역, 한길사, 2009, 398~401쪽.  
지그문트 프로이트, 『문명 속의 불안』, 김석희 역, 열린책들, 1997, 1~397쪽.

### 3. 논문

- 김미현, 「혐오의 매혹: 코맥 맥카시의 『피의 자오선』, 『감정의 지도그리기』,  
2015, 소명출판사, 213쪽.  
김애령, 「이방인의 언어와 환대의 윤리」, 『젠더와 탈/경계의 지형』, 이화인  
문과학원 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9, 44~47쪽.  
박규택, 「주권국가의 생성과 변화 속 로컬리티의 위상」, 『로컬리티의 인문  
학』 26, 2013, 5쪽.  
소영현, 「마이너리티, 디아스포라-국경을 넘는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제  
22호, 2009, 65~91쪽.  
손철성, 「난민의 인권」, 『윤리교육연구』 제32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3,  
207~208쪽.  
신경숙, 「공감, 보기, 그리고 감정노동-『프랑켄스타인』의 아담 스미스 다시  
읽기」, 『영어영문학』 제58권 2호, 2012, 189~215쪽.  
오영숙, 「탈북의 영화적 표상과 아시아라는 공간」, 『탈북의 경험과 영화 표  
상』, 2011, 문화과학사, 177쪽.  
이혜령, 「탈국경의 상상과 21세기 한국소설의 역사지리학」, 『한국소설과 골  
상학적 타자들』, 소명출판, 2007, 352~353쪽.  
하용삼, 배운기, 「경계의 불일치와 사이 공간에서 사유하기-G. 아감벤의 국  
민·인민, 난민을 중심으로」, 『대동철학회』 62집, 2013, 85~108쪽.

## Abstract

### The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and Cultural Politics of Sympathy/Hatred

Kim, Eun-Ha

The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are a main character which the Korean literature takes notes newly with immigrant and foreign worker, as a nation-state changes to a place for migration and settlement in supranational movement of capital and reforming of the labor market. Crossing of the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are giving evidence that while paternalistic authority of North Korea system is falling apart, the fringes of the world system is becoming a position of subaltern by powerful nation and huge capital. The story of the North Korea female refugees implies that even if they have a right of a stranger who is not treated unfairly when arriving at a strange land, a stateless person or a refugee couldn't have shelter because they are exiled from the trinity ; nation, people and territory. Unless the society can't admit their status, they could be called as 'absolute stranger', like an inhuman person that can't be protected under the minimum law.

The Korean literature rediscovers suffering of the North Korea female refugees as a resource of empathic morality that could awaken civic conscience. The tragic and degrading events during their movement thresh feelings such as sorrow, rage and shock. This implies that as the suffering of a victim has been transferred to an observer, and then the observer could feel the similar emotion

as the victim, 'consciousness of kind' may be formed.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North Korea female refugee an object of sympathy, however, the border area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becomes a metaphor of the savagery out of morality and order of civilization. In the nonfiction, Asia reminds us of natural state in which is a land for a pack of wolves that are ready to rape and to kill for a profit, like a vast wilderness, namely, all people become wolves. Such reappearance implies that as Korea, which is emerging as a subaltern in the world system, distinguishes itself from North Korea and China, Korea would like to try to escape from Asia. Hatred involves guard consciousness and rank consciousness, at the same moment it contains conception of proximity and homogeneity with oneself. It is difficult to think that reappearance for the North Korea female refugees also has got out of economy of disgust. The reason why is that as they fall into an in human person, being destroyed and being squeezed under grotesquerie space, Asia, they could be an object pity.

Key words : The North Korea, Female Refugees, Stranger, Loss of Place, Border, Civic Rights, Hatred, Sympathy etc.

■ 본 논문은 2016년 7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